

## 현대 민화의 창작에 관한 범본(範本)

‘민화’라는 용어는 막사발과 같은 조선의 민예품에 깊은 감동을 받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가 조선인들이 그린 소담한 그림을 보고 일컬은 말에서 시작되었다. 야나기는 조선의 책거리 그림을 보고 ‘불가사의한 조선 민화’라고 감탄하였고, 리심(梨心)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프랑스 대사 빅토르 콜랭(Victor Collin de Plancy)의 수집품 가운데는 민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민화가 갖는 인간의 감성을 아찔하게 홀리는 환상적인 조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략)

민화는 세계의 본질, 사물의 본질을 드러낸 그림으로써,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추상화된 그림이며, 정신적인 그림인 것이다. 어니 프랑수아 친하자는 우주는 깊이 사랑하고 응시하는 자에게 비로소 그 신비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본질을 관조하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은 비밀의 방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작가의 놀라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남정예작가가 이룩한 것이기도 한데, 남작가의 민화는 어눌한 맛이 갖는 조선민화의 단순하고 신선한 조형미와 궁중장식화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격조 있는 미감이 미묘한 경계선에서 공존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 고전의 고루한 맛을 덜고 미니멀한 현대의 조형어법들을 대입하는 작가의 태도는 전통과 현대라는 경계에 있는 많은 작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범본이 되고 있다 하겠다.

박옥생(한원미술관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 (재) 한원미술관 HANWON MUSEUM OF ART

- 건물뒷편에 주차장 있습니다.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 개관시간 오전 11시~오후 6시  
(일요일도 개관합니다)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나른한 오후 \_ 59×30cm \_ 한지에 채색 \_ 2010

## NAM, JUNG-Y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성신여대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개인전

2011 제8회 (한원 미술관) / 2010 제7회 (아트앤컴퍼니 기획초대전, 신한PB센터)  
2009 제6회 (갤러리 아이 기획초대전) / 제5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전)  
2007 제4회 (진천 중 박물관 기획초대전) / 제3회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2006 제2회 개인전 (PICI 갤러리) / 제1회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 단체전

2010 K.P.F.J Fine Art Festival (필리핀 마닐라 국립현대미술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 (베트남 한국문화원) 그 외 60여회 그룹전

現 : (사)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중앙운영위원, (사) 한국미술협회 민화분과위원  
(사) 우리민화협회 이사, 월간 아트밴드 기획이사,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글로벌 미술대전 운영위원, 국립민속박물관 민화강사

작업실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65-1 천마빌딩 402호 민화연구원  
전 화 : 02-764-7660 / c.p : 010-3752-7660  
http:// www.namjungye.com / E-mail : namjy@paran.com